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어릴 때 나는 웬지 김장 담그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이다'라고 혼자 속으로 존경심을 가지곤 했다. 초겨울이면 리어카에 실린 배추 더미가 이 집 저 집 마당으로 들어가고 동네 여기저기서 김장을 담갔다. 산더미 같은 배추와 대야에 담긴 고춧가루 양념, 고무장갑을 끼고 목에 수건을 둘렀지만 추위로 코가 빨개진 여자 어른들, 고른 두께로 곱게 썬 무채와 비린내가 나는 짓갈, 알싸한 마늘과 생강. 노란 배춧속과 붉은 고춧가루와 푸른 쪽파가 이루는 선명한 색채의 대비. 그릇은 정갈이지 오감을 자극하는 현상이었다.

부드럽게 절인 배추 사이사이 김장 양념을 채워서 장독에 차곡차곡 쌓으면 1년치 식탁을 책임질 김장이 되었다. 나는 가끔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바르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어린이의 부드러운 피부에 매운 양념이 닿으면 안된다고, 어른들은 재미 삼아 한 두 번 발라 보기만 한 후 서둘러 나를 부엌에서 쫓아냈다. 어린 내가 보기에 김장은 고된 노동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삶의 현상이었고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성대한 기준 중 하나는 김장을 담는 것이었다.

김장을 담그며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담근 이웃들이 한번 맛이나 보라며 접시에 담은 김치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김장철이면 삶은 돼지고기와 생굴과 갓 담은 김치가 저녁상에 자주 올랐다. 나는 삶은 돼지고기를 조금 먹었을 뿐 굴도 날김치도 먹지 않았으므로 내 입장에서는 김장철이면 오히려 먹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만은 즐겼다. 김치와 함께 부침개나 내가 먹은 만한 것들이 따라오는 일도 있었고, 집집마다 김치의 맛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도 흥미로웠다. 옆집에서 온 김치 갈피에서 조그만 새끼 조기가 툭툭 발견된 날 우리 가족들은 한참 웃었다. 우리는 김장 김치에 해물을 많이 넣지 않았으므로 그 작은 생선을 김치와 함께 으적으적 씹어 먹어치울 자신은 아무도 없었고 양념을 씻어내고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어떻겠냐는 우스개가 저녁 식탁을 오갔다. 김치 갈피를 헤치며 '여기도, 여기도!' 하며 작은 생선들을 찾아냈던 그 저녁은 어린 나에게 특별히 흥겨웠던 날이었다.

자라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거울에서 흰머리와 주름살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 이후로도 나의 어린 되기는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집안일에 익숙해져 갔지만 김장만은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해마다 양가 어른들이 보내주시는 김장 김치가 넉넉해 김치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김치 소비가 많지도 않았다. 어쩌다 배추나 무가 생기면 배추전 무전을 부쳐 먹었다.

하지만 5년 전 어느 날 뒷밭에 취미를 붙인 친구가 배추 세 통과 무 두 통을 선물로 주자 전을 부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분량인 것이 한눈에도 확실했다. 나

는 별별 떨면서 인터넷을 뒤져 초보용 김장 레시피를 검색했고 시장에서 짓갈과 고춧가루를 사왔다. 밤새도록 비장하게 배추를 절였고, 그렇게 얼얼결에 우리 집의 김장이 시작되었다.

덜 절여진 배추가 김치 뚜껑을 열고 살아 나왔다니, 김장이 물러져서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니 나는 초보 김장 고집은 일어나지 않았다. 첫해부터 맛있는 김치가 담겨져서 내가 가장 놀랐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김장 김치를 다 먹어치워서 새로 담그기까지 했다. 실은 첫째 김장이 가장 맛있었고 다음 해부터는 첫 해의 기적적인 맛이 재현되지 않았다. 레시피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첫째 김장의 비결이 뭐였을까? 아마 고소한 텃밭 배추의 위력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따름이다. 이듬해부터 텃밭 배추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맛있는 김장이 만들어졌다. 자식은 평생 어린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부모님도, 내가 김장을 담기 시작하자 갑자기 나를 동등한 어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해마다 배추 여섯 통으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올해는 배추값이 내 김장 역사상 가장 싼 해였다. 김치통 하나를 가득 채우면 끝나는 소량 김장이지만 우리 세 식구 1년 먹기는 충분하고, 이웃들에게 한 쪽씩 먹여보라고 돌리는 재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김치를 주고 김치를 받는 재미 있는 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 내 김치도 맛있지만 이웃들의 김치는 더 맛있다. 굴과 갓 담은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로 이 계절의 정찬을 즐기며, 성냥갑 같은 아파트 살이에도 소소하게 남은 이웃 간의 정을 기쁘게 누린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성탄을 기다리며, 2022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해 본다. 가톨릭교회는 성탄을 기다리며 대립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립 시기는 기쁨과 희망이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고 배려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생하고 나눔을 실천했는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성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통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고백한다. 고해성사는 성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하느님 백성의 합당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들이 매일 맞이하는 날들이 새로운 날이며 희망의 날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지난 과거의 삶을 반성 없이 그대로 살기보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각자의 깊은 내면에서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쉽지 않다. 감각에 의존하며 물질의 풍요

버려야 할 것

와 편안함이 주는 달콤함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이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 철저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행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은 꺼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연히 읽게 된 한 문장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스스로 버리게 된다"는 글이다. 우리 몸은 감각적 기능을 통해 만족감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만족감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한 만족감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 그리고 또 채워지면 더한 것을 찾아 만족감을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 끝나지 않는 피비우스의 피처럼, 만족감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무리수를 느낄 때도 있지만 멈추지 못한다. 아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이 욕구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카 북을 12장 13절에서 21절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정신 없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보물에서 우리 마음을 앗아가며 종종 불안, 불행, 남용, 전쟁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탐욕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면서 "재물은 필요하지만 나눠야 한다. 탐욕을 위한 전쟁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버리고 비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들, 손해 볼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이라면 언제든 포기하고 회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한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놓는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우고 낮추고 배려하고 회생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접할 때도 많다. 사랑에 조건을 달며 계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저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 망하는 것을 경험한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는 말이 떠오른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까지도 놓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이제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이것이 비유의 영성, 낮추면 높아진다는 역설, 죽음을 통한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끝없는 전쟁처럼, 소유해야 높아지고 천박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로 경쟁의 식에 사로잡혀 점점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쁨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 올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행복했고 기뻐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스스로 버리게 된다"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기고

손흥민과 배려의 말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스포츠 스타들은 미디어 인터뷰에 나오는 일이 보통의 정치인보다 많다. 신경이 쓰일 것이다. 우승 소감을 인터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등을 포기하고 2등을 한다는 선수가 있을 정도다. 경기가 끝난 뒤에 하는 인터뷰는 즉흥적이다. 충분히 준비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말실수가 일어나기 쉽다. 자칫 심각한 실언을 하면 치명타를 입는다. 이를 피하려면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을 잘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의 말은 손흥민 선수가 12월 6일 카타르 매체 '비인 스포츠'(beIN SPORTS)와 한 인터뷰가 화제다. 이 매체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카타르 월드컵 탈락에 대한 손흥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인터뷰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인터뷰 실력도 세계 수준급이다.

기자는 이렇게 물었다.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전반전은 후반전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포르투갈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전에서 전반에 선취점을 내줬으나 곧바로 만회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추가 득점을 해 2대 1로 역전승했다. 그렇게 해서 오른 16강전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을 만나, 1대 4로 크게 졌다. 비인 스포츠 기자의 질문은 전반전에서 부진이 누구 때문이냐는 합정을 판 질문이었다.

기자는 대량 실점 책임이 손흥민 본인인 아닌 다른 누구에게 있는지 말하기를 기대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선수는 기자의 질문 의도가 불편하다는 듯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바꿨다. 그런 식으로 우릴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대답했다. 주장으로서 모든 선수를 감싸는 말이었다.

사람의 대화에는 나, 상대방, 그리고 제3자가 등장할 수 있다. 말을 잘 하는 기본은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나 내가 거론하는 제3자의 처지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용재총화'에 조선 세종 때 판중추부사 민대생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가 아흔 살을 맞은 해 설날에 조카, 손자들의 세배를 받았다. 그중 한 조카가 "백세를 누리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민대생이 "그런 박복한 말이 어디 있느냐?"면서 조카를 내쫓았다고 한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 절을 하면서 "백살까지 사시고, 또 한번 백세를 누리십시오"라고 하자, 민대생은 "축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도리"라고 기뻐하며 음식을 잘 차려 먹여 보냈다고 한다. 아흔 살까지 산 노인도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배려란 그걸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다.

배려가 부족한 말은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꼭 필요한 배려를 결여한 경우가 그렇다. 더 심각한 것은 함담이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다. 이는 그 자체로 뒷탈을 일으키는 말실수라 할 만하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전에서 전반전에 네 골을 먹을 정도로 부진했던 책임을 다른 선수들에게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사자의 반발이 나오고, 서로 함담이 확산되는 불쏘시개가 되었을 수 있다. 사람들은 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게 도리어 비난을 집중했을 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전에 투입된 젊은 선수들에 대해 "그들이 자랑스럽다. 어린 선수들에게 첫 월드컵 출전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이 말은 그가 주장으로서 팀의 조직력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손흥민이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 밝은 표정에 상대에게 늘 감사하다고 표현한다. 배려하는 말 습관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몸에 배게 하려면, 마음까지 다스려야 한다. 마음에 있으니,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손흥민 같은 뛰어난 선수가 말이 멋지고 마음 씀씀이까지 아름다우니, 즐거움이 갑절이다. 정치인들이 그의 말에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다.

社說

전직 의원·공무원 단체 편법 월세 지원 중단해야

광주시 자치구들이 전·현직 구의원 및 전직 공무원 단체에 편법으로 사무실과 보조금 등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치평동의 한 경로당이 지난 6년간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는 2017년 경로당 지정 신고 때부터 실내에 칸막이를 세워 사무실을 독점 이용했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운영비와 비품 구입비로 지금까지 2460만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행정동우회에 2020년부터 3년간 홍보 책자 제작 등 명목으로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광주시 남구도 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전·현직 남구의원들만 이용하는 특별 경로당을 설립하고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남구는 이 경로당에 임차 보조금 5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1990만 원을 지원했고, 매달 82만 5000원의 월세를 5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민 월세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에 지원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에 특혜성 예산을 배정한 것은 지자체의 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구는 경로당 지정 신고 당시에는 회원 수와 면적 등 기본 사항만 확인했고, 남구도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상 특별 경로당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자체가 조례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항변하는 자세는 적당하지 않을 수 없다. 특혜성 지원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필수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 준다. 해당 자치구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고, 이들 단체에 대한 편법 월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고독사 매년 200명...예방 체계 급하다

홀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孤獨死) 사망자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5년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이었다. 지난 2017년 2412명보다 40%나 증가하며 5년 동안 1만 5066명에 달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017년 182명, 2018년 191명, 2019년 214명, 2020년 232명, 2021년 235명으로 매년 늘어 5년간 1054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많은 시도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이었다. 광주는 지난해 고독사 발생이 전년도(8.2명)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남은 연평균 증가율이 12.7%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고, 대전·경기와 함께 10만 명당 고독

사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눈에 띄는 점은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 그것도 남성의 고독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50~60대가 1982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2817명)이 여성(529명)의 5.3배였다. 고독사 증가는 가족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세가 된 1인 가구는 주변과 단절된 채 독립생활을 꾸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독사는 이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 내 연결 고리와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 또한 영국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설치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을 추적·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02 한일 월드컵의 '골든 볼'(최우수선수) 수상자는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호나우두가 아니다. 독일의 골키퍼 올리버 칸이다. 칸은 눈부신 선방으로 독일을 결승전까지 이끌었고 골키퍼가 경기의 승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 줬다. 그는 골든볼에 이어 '아신상'도 수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94 미국 월드컵부터 대회 최우수 골키퍼에게 아신상을 주고 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인 옛 소련의 레프 야신을 기리기 위해 만

등 우승 후보들이 결국 PK로 울었고 'PK 장인'이라는 잉글랜드의 케인은 공을 허공에 날려 일생일대의 우승 기회를 놓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름도 야신이고 실력도 야신인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 선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준결승에서 프랑스에 두 골을 내줬지만 8강전까지 단 한 차례도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지 않았고, 특히 세 번의 PK를 모두 막아내 '신의 손'임을 증명했다.

또 다른 4강 팀 크로아티아의 선전에도 골키퍼 리바코비치의 눈부신 선방이 있었다. 그는 16강전과 8강전에서 PK를 두루 네 개나 막아

다. 지금은 '골든 글러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부폰·카시야스·노이거 등 당대 최고 골

키퍼들이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야신은 공식 경기에서만 페널티킥(PK)을 150번 이상 막아 내 방어율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그를 상대로 PK 골을 넣으려면 동전 던지기와 다름없는 운에 맡겨야 했다. 모로코와 크로아티아는 아쉽게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야신과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올리버 칸처럼 골든볼을 수상할 가능성도 사라졌고 이제 '아신상' 경쟁만 남았다.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와 프랑스의 요리스도 만만찮은 경쟁 후보다. /유재만 편집담당국장 jkyou@

아신상 부진 선방이 있었다. 그는 16강전과 8강전에서 PK를 두루 네 개나 막아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